



가격 폭락으로 9일 오전 나주배 경매가 일시 중단되면서 나주배 공판장 옆 주차장까지 배 상자들이 줄지어 쌓여 있다.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나주배 재배농민들은 올해 가격 폭락으로 500억원대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배 가격 대폭락 '추석 쇼크'

지난해 절반값... 수백억 손실 불보듯 구매자 없어 경매 중단 초유의 사태도

나주 배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구매자마저 없어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농가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나주지역의 배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18%를 점유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나주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나주배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15kg당 1상자(16~20과)에 3만8천원

이던 배 가격이 8일에는 2만 원 미만으로 폭락했으며 9일 오전 한때 구매자가 없어 경매가 중단됐다.

나주배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매를 시작했으나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없어 가격 형성이 안돼 경매를 중단했다. 30분 뒤 경매가 재개했으나 급락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 4만~4만5천 원에 출하됐던 것에 비해 무려 50%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던 나주배 재배 농민들이 올해 수백 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생산 물량의 70%가 소화되는 추석을 앞두고 가격 폭락으로 경매까지 중단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농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나주 배 가격 폭락은 전국적으로 배 생산이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는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예년에 비해 추석이 한 달가량 빨라 과일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 이후 집중 출하가 이어져 가격 폭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배 재배 농민인 김모 (61·나주시 금전면)씨는 "갑자기 가격이 폭락해

눈 앞이 캄캄하다"며 "앞으로 가격이 더욱 폭락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 설 때 판매를 위해 저장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농사를 포기하고 싶다"고 한숨지었다.

농민들은 추석 판매가 마무리되는 9일 이후 가격이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헐값에도 판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주배조합 관계자는 "예년 판매 물량의 30% 정도밖에 출하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가격이 폭락해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감소가 가격 폭락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완도 출신 이윤리 한국 첫 금

패럴림픽 여자 사격 남 이지석도 금 총성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사격에서 한국선수단이 고대하던 금메달이 한꺼번에 두 개가 쏟아졌다.

<관련기사 22면>

장애인 여자사격 국가대표인 이윤리(34·전남일번)는 대회 나흘째인 9일 베이징 국가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50m 소총 3자세 결승에서 결선합계 676.9점으로 671.0점(571+100.0)을 쓴 팀 동료 김임연(41·KB국민은행)

을 5.9점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윤리의 기록은 장애인 세계신기록이자 패럴림픽 기록이다. 김임연이 2위가 돼 한국은 이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싹쓸이했다.

이어 남자 10m 공기소총에 출전한 이지석(34)은 이날 베이징사격장에서 열린 결승에서 705.3점(예선 600점+결승 105.3점)을 쏘아 프랑스의 라파엘 볼츠를 0.2점차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연습스



한국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완도출신 이윤리 선수. /연습스

광역시·도 폐지 행정구역 개편 찬성 66%·반대 23%

광주·전남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설문

'현행 광역시·도를 없애고 전국 기초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과 관련, 광주와 전남지역 정치권 인사 가운데 66.3%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9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시·도 의회 의원, 시·군·구의회 의장 등 123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구역 개편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1명 가운데 찬성이 67명, 반대는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1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나머지 22명은 해외출장 등으로 설문에 응하지했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입장을 유보한 3명을 제외하고 17명(85%)이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했으며, 광복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박 지사는 "서로 다른 역사·문화를 가진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묶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 우려"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장 중 4명이 "광역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 가운데 10명(응답자의 55.5%)이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했고 반대는 6명, 입장 유보 2명, 무응답 4명 등으로 조사됐다. 반대 입장은 '지역간 갈등유발', '영세 자치단체 소외' 등을 이유로 꼽았다.

광주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가운데 12명(응답자의 75%)이 찬성했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치권 찬반

광역 기초단체장	(응답자 24)		
총	찬성	반대	유보
24	14	7	3
국회의원	(응답자 20)		
총	찬성	반대	유보
20	17	0	3
광역시의원	(응답자 16)		
총	찬성	반대	유보
16	12	3	1
전남도의원	(응답자 35)		
총	찬성	반대	유보
35	23	5	7

며 반대는 3명, 입장 유보는 1명, 2명은 해외출장 중이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51명 가운데 35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박인환 의장을 비롯 23명(65.7%)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반대는 14.3%인 5명이 그쳤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제 불황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현 정부 초기의 국정관행을 시인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력하고 고통이 있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초기 국정관행을 시인하고 새 출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짐하면서 법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정치 미래 비전 등 각 분야별 현안 해결의 질문

에 결려한 자세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시인하는 한편 부동산대책, 감세정책, 물가대책, 공기업 선진화 등 각종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해 지속형 공립과 설립 등 기존 대선 공약 이행도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도 과거 비정규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분야별 질문에는 김권 초 국정지지를 추락을 비롯해 쇠고기파문, 촛불집회, 사교육비 부담, 독도영유

권 문제, 이산가족 상봉, 9월 경제위 기설, 부동산 대책, 세계개편안, 비정규직 문제, 녹색성장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20여개의 핫이슈가 다뤄졌다.

또, 네티즌들로부터 접수한 질문과 전국 각지의 시민 10여명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영상 질문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Korean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

IOPE